

대한민국 50대 브랜드 총가치 201조...삼성전자 102조

인터브랜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3' 개최

브랜드 톱 5...삼전-현대차-기아-네이버-SKT

톱 성장률...삼전-현대차-현대백-쿠광-하이브

톱 50 진입...LG엔솔루션·오리온·두산에너지리티

대한민국 50대 브랜드 총가치는 20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3'(Best Korea Brands 2023) 오프라인 콘퍼런스를 25일 서울 용산구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서 인터브랜드는 지난해 활약한 국내 대표 브랜드 50개를 선정하고, 'Brands as Acts of Leadership-브랜드, 새로운 중력'이라는 주제의 브랜드 인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성장 비결을 공유했다.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들의 총가치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톱 50' 가치 총액은 무려 201조125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경기 침체에도 저마다의 리더십으로 브랜드 내러티브를 전개하며 성장을 일궈낸 결과다.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톱 5...삼성전자-현대차-기아-네이버-SK텔레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 2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다. 1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02조11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9.9%나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 상승에 의해 강화한 존재감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품 출시, 통합된 연결 경험 제공, 시장 선도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등이 크게 작용했다.

2위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대비 16.5% 상승한 20조1625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했다. 이는 명확한 미래 비전 제시와 기술적 혁신이 함께 이룬 결과다. '2045 탄소 중립' '메타 모빌리티' 등 시대를 앞서는 화두를 제시하며, 이동 경험의 자유를 실현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10.9% 증가해 3위에 오른 기아 브랜드 가치는 7조 6994억원이었다.

4위 네이버는 지난해보다 3.9% 하락해 6조7493억원이었다. 5위 SK텔레콤은 3조632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3.3% 올랐다. 이들 최상위 5개 브랜드 총가치는 약 140조3000억원이다. 50대 브랜드 전체 가치의 약 69.8%에 달한다.

◇톱 성장률, 삼성전자-현대자동차-현대백화점-BGF리테일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위 삼성전자와 2위 현대자동차는 각각 지난해보다 각각 19.9%, 16.5% 성장해 '톱 성장률'(Top Growing)을 나타낸 브랜드 리스트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43위)은 지난해 대비 13.1% 증가한 4764억원을 브랜드 가치로 기록했다. BGF리테일(38위)은 12.6% 상승한 5963억원, 쿠광(14위)은 9.4% 증가한 2조1944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이브는 브랜드 가치 6437억원으로 8.7% 성장률을 보인 데 힘입어 39위에서 4계단 상승한 35위에 올랐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들 브랜드는 소비자 일상 속 다양한 영역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연 매출 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부문을 필두로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 강화와 고수 상품군의 매출



인터브랜드 서울오피스 문지훈 대표가 25일 서울 드래곤 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열린 '2023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에너지솔루션 송충섭 담당, 인터브랜드 곤잘로 회장, CJ제일제당 최자은 CMO, LG전자 김효은 상무, 인터브랜드 서울오피스 문지훈 대표, KB국민은행 최재영 부행장, SK하이닉스 박주찬 팀장.

호주 지국이 고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더현대 서울을 통해 공간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는 노후우를 입증했다.

BGF리테일은 차별화된 PB상품 출시, FF(Fresh Food) 및 HMR상품 카테고리 강화 등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있다.

쿠광은 재무적인 실적 개선에 더불어 음식 배달, OTT, 간편 결제 등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대, 상생·동반성장 가치 실현 등이 브랜드 가치 성장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하이브는 한미일 3대 본사 체제를 기반으로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빌리프렘 등 '멀티 레이블' 전략을 통해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를 물론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었다.

◇새로운 톱 50...LG엔솔, 오리온, 두산에너지리티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톱 50에 LG에너지솔루션(46위·4257억원)과 오리온(47위·4184억원), 두산에너지리티(49위·3973억원) 등 3개 브랜드가 새롭게 진입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해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혼다, 포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공장 건설을 연이어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 사업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친환경 리튬 생산 방식 도입,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리더십 있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오리온은 탄탄한 제품력을 토대로 국내를 넘어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국내 대표 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퍼푸드'를 선정하는 등 제과 기업에서 건강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변신하

고 있다.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문지훈 대표는 "2023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중력으로서 브랜드가 가지는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고객의 사랑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성장시켜 세상을 리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인터브랜드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브랜드는 매년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를 실시해 브랜드 가치 순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요 브랜드와 마케팅 관련 랭킹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터브랜드 한국법인은 글로벌 평가 기준과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해 2013년부터 매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를 선정하고, 기업 브랜드·마케팅 관계자에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콘퍼런스는 국내 굴지 기업 관계자가 브랜드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랭킹과 자세한 사항은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홈페이지 참조.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